

한국농어촌공사 김해·양산·부산지사 유관기관 합동 소방 훈련

윤 차진형기자 | 승인 2026.04.15 17:29 | 11면

공공기관 재난 대응 체계 점검·실전 대응력 향상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김해·양산·부산지사는 15일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김해·양산·부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박찬희) 김해·양산·부산지사(지사장 손홍모)는 15일 지사 자위소방대의 자율 소방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.

이날 훈련은 김해동부소방서 동상119안전센터와 안전대행업체 등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.

훈련은 지사 사옥 1층 건물 외벽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긴박하게 진행됐다. 지사 전 직원은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라 ▲신속한 화재 통보 및

119 신고 ▲피난 유도 요원에 의한 전 직원 대피 ▲소화기 및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초기 진압 등 시나리오에 따른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.

훈련에 참여한 김해양산부산지사 직원들은 "막연하게 알고 있던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실제 상황처럼 연습해 보니, 비상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"며 소감을 전했다.

손홍모 지사장은 "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,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"며 "앞으로도 정기적인 합동훈련과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직원의 안전을 지키고,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다. 차진형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차진형기자